

###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미디어의 역할

Joseph Rudigi Rukema Associate Researcher  
University of KwaZulu-Natal

#### ■ 주요 내용

-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프리카계 외국인 혐오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-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조직, 매춘, 인신매매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,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.
- 인종 혐오는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관광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. 따라서 적절한 미디어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인종혐오로 인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재건할 필요가 있음.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  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## 1

## 아파트헤이트의 개요

▶ 아파트헤이트는 194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정권에 의해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분리 정책으로,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을 의미함.

- 아파트헤이트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생겨난 이후,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‘단절된 국가’로 여겨져 왔음.
- 그러나 해당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는 인종차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범죄나 공격이 적은 편이었음.

▶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 이후,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년간의 차별과 억압된 통치로부터 벗어남.

- 새로워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사회적, 정치적, 지리적 환경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·평등·민주주의 국가로의 초석이 됨.
  - 차별의 피해자 위치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이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 성장함.
-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아파트헤이트 정책이 폐지되면서, 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됨.
  -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민주화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임.
- 하지만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,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불만은 쌓여감.
-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변화된 국가에 높은 기대를 걸었으나, 주거·교육·보건·고용 환경 등에서의 개선은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함.
  - 이들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가로채고 있다고 비난하며, 범죄 발생, 성매매, 기타 사회 문제들이 증가하는 이유 역시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함.
-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외국인,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프리카계 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여김.

- 이들의 분노와 불만은 외국인들을 향한 증오와 폭력으로 나타났으며, 주로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그 대상이 됨.
- 아프리카계 이주민에 대한 공격은 많은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국민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침.

## 2 현재 남아공의 외국인 혐오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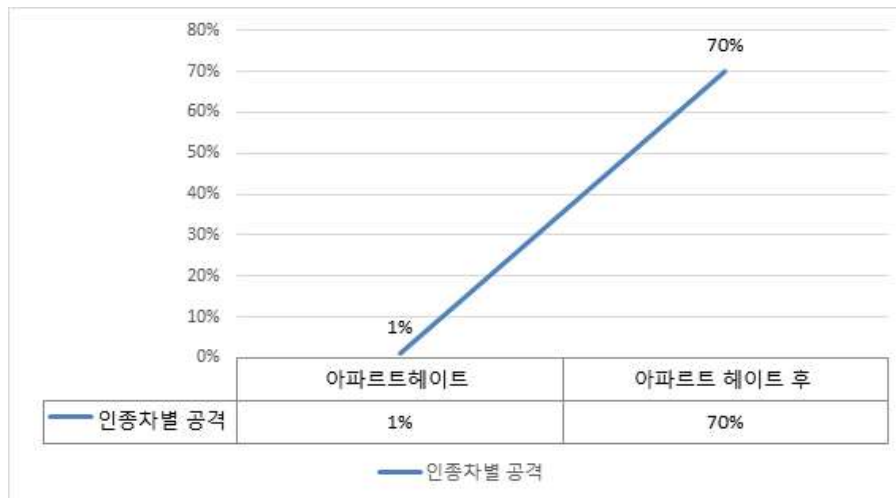
☒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프리카계 외국인 혐오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-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혐오 범죄는 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이 대상이 됨.
  -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은 남아공 국민의 ‘불만의 희생양’이 되었으며, 국가 빈곤과 박탈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되기 시작함.

☒ 2000년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다수의 인종 혐오 공격이 발생하였음.

-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 혐오로 공격 사례가 증가하였음.
  - 특히 2000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8년 간 최소 87명이 인종 혐오로 인한 공격으로 살해됨.
  - 2008년 5월 발생한 폭동으로 인해 102명이 사망했는데,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21명에 불과함.
-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주한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함.

표 1.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트헤이트 정책 전후 인종 차별 공격 추이



자료 : 필자 직접 작성

### 3 외국인 혐오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

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디어가 인종 혐오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, 원인과 영향을 증명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.

-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혐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, 미디어가 인종혐오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연구된 바 없음.
  - 그러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과 활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여전히 풍부한 탐구 주제로 남아있음.
- 2008년 당시, 미디어가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 혐오 폭력을 부추긴다는 설이 팽배하였음. 그러나 이는 원인-영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나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었음.

❑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조직, 매춘, 인신매매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정치인들의 성명은 이민자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.

-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 보도와 정부 관료의 연설문을 분석하면, 해외에서 온 이민자가 범죄, 실업, 거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  -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인종 및 경제적 불평등, 다민족과 언어, 지켜지지 못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음.

- 불명확한 출처의 자료와 다수의 미디어에서 배포되는 정보로 인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인종혐오 무정부주의에 휘말렸다고 비난받기도 함.

## 4 시사점과 전망

▶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위상 있는 국가로 성장한 만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함.

-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이주한 난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되었음.

▶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은 인종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.

-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 보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는 인종 혐오로 인한 공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.

▶ 인종 혐오는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, 국제 무역, 특히 관광과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남아프리카공화국 관광협회(Tourism Business Council of South Africa, TBCSA)는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국인 혐오증 공격이 증가한 이후 남아공을 여행하는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음.
-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디어는 아프리카계 이주민들과 이민에 대한 이슈들을 적절히 보도함으로써, 인종 혐오와 그에 따른 사건으로 하락한 국가 이미지를 재건할 필요가 있음. **EMERiCs.**

### 출처

Tourism Business Council of South Africa, TBCSA 및 현지 언론 매체 등